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2009.6. pp.125~151

현대소설에 나타난 그림자인격 인식과 의미

- 최인호의 「개미의 탑」·장정일의 「펠리컨」을 중심으로

A study of shadow personalty and semantic network expressed in modern novels

- Based on "Tower of ants" by Inho Choi and "Pelican" by Jungil Jang

최윤자

(단국대 박사과정)

차 례

- | | |
|-----------------------------|------------------------|
| 1. 머리말 | 투사 양상 |
| 2. 「개미의 탑」의 구조와 그림자인격과의 상관성 | 1) 그림자인격의 특성과 의미 |
| 1) 그림자인격의 실체 | 2) 주인공의 성격: 부모 부재 콤플렉스 |
| 2) 주인공인물의 성격 | 3) 흑·백의 이미지 |
| 3) 개미의 성격과 의미 | 4) 그림자인격의 투사 양상 |
| 4) 그림자인격 인식 | 4. 맺음말 |
| 3. 장정일의 「펠리컨」에 나타나는 그림자인격과 | |

1. 머리말

본고는 최인호의 「개미의 탑」(1977)·장정일의 「펠리컨」(1988)을 ‘융심리학’¹⁾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두 소설에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들에서 드러나는 비합리적 사고와 비정상적 행동 양상을 분석하고, 두 작품이 지닌 공통적 특성인 환상적·초월적 구조를 통해 심리학적 구조가 현대소설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아울러 본고는 특정

1) 본고에서 ‘심리학’이라고 표현하는 말은 일명 ‘심층심리학’으로서 융의 ‘분석심리학’을 지칭함을 밝혀 둔다. 흔히 ‘심리학’이라고 하면, ‘의식’만을 다루는 ‘심리학’을 말한다. 심층심리학이란, 인간의 마음에는 무의식적인 차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심리학이다. 심층심리학에는 프로이트 학파의 정신분석학(psychanalysis), 아德勒의 개인심리학(individual psychology), 그리고 융학파의 분석심리학(analytical psychology)이 있다.

2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한 작가를 선정하여 그 작가의 창작 태도나 작품의 성향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는 태도에 치우치지 않고, 현대소설에서 환상적·초월적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작품만을 선정하여 심리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분석해나감으로써 문학 연구의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두 소설에 나타나는 환상적·초월적 구조부터 간략히 알아보기로 한다. 「개미의 탑」의 중심인물인 ‘그’의 직업은 카피라이터이다. ‘그’는 낮에는 광고 회사사장으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밤에는 자신이 거처하는 공간에서 매일같이 흑사병을 일으키는 페스트균(pest菌)처럼 습격해오는 개미들과의 전쟁을 벌이다 마침내 ‘그’ 스스로가 개미들의 제물이 되어버리는 초월적 구조를 보인다. 「펠리컨」의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오물을 잔뜩 뒤집어 쓴 검은 펠리컨이 악취를 풍기며 커다란 입을 벌리고 다가온 순간부터 이유 없이 잔인한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본 이웃 주민이 고발한 바람에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 되지만, ‘나’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다 펠리컨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신부님의 충고를 듣는 순간 별안간 ‘나’의 태도가 급변한다.

「개미의 탑」에 대해 ‘손정수’²⁾는, 대중사회의 생리와 그 문제점에 대한 천착을 보임으로써 최인호 소설세계의 넓은 폭을 새삼 확인케 하는 계기임과 동시에, 보다 본질적으로는 그의 현실비판의 방법적 측면과 작가적 정체성의 유지 방식과도 관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펠리컨」에 대해 ‘장현숙’³⁾은 소설의 작가가 “펠리컨은 입이 크다”라는 명제를 반복해 사용하면서, 현실 속에 만연해 있는 공권력의 폭력성, 육법의 부조리성, 민중이나 혁명 또는 이데올로기의 편파성, 매스컴의 허위성, 군중심리의 무모함,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악마성, 이기심, 무뎠진 양심, 까닭모를 증오심 등을 비판적으로 아우함으로써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을 전복시키고 해체시킨다고 했다. 본 필자는 두 소설에 대한 이러한 해석들에 관해서 한편으로는 동의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의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두 소설이 지닌 공통적 구조는 현실적인 측면을

2) 손정수, 「극적 상황과 자전(自傳)의 세계」, 최인호, 『즐거운 우리들의 천국』, 문학동네, 2002, p.314.

3) 장현숙, 「펠리컨 작품 해설」, 최일남 외, 『호르는 북』, 푸른사상, 2008, p.157.

현대소설에 나타난 그림자인격 인식과 의미 3

보여주기보다는 환상적·초월적 구조를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작품 모두에서 현실비판이나 까닭모를 민중의 증오심의 특성을 드러내다기보다 정신(무의식)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정확히 말하면, 두 소설의 환상적·초월적 구조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실현’⁴⁾의 길로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으로 보인다.

‘자기실현’ 또는 ‘인격성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자신의 ‘그림자인격’⁵⁾을 의식화하는 작업에 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적지 않은 고통이 수반된다. 그것은 자아가 자신의 그림자인격을 발견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데, 그림자인격의 실체가 바로 무의식에 억압된 어두운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만일 상대방이 자신의 결점을 비난해왔을 때 마음속에 심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곧 그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림자인격의 일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이 그림자인격은 그 자신의 무의식에 감추어진 열등한 부분 즉, 아픈 곳이기도 하다. 이런 특성을 가진 그림자인격은 대개 의식화를 통하여 분화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무의식에 있는 동안에는 곧잘 밖으로 ‘투사(projective)’⁶⁾되어 다른 대상을 비난한다. 투사의 특성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강력한 감정 반응을 일으키는 자아가 그 대상에게 집착하게 만든다. 일단 투사가 일어나면, 의식적 자아는 그 대상에 대하여 초연해질 수도 무관심 할 수도 없다. 그러나 투사가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왜냐하

4) ‘자기실현’ 또는 ‘인격성숙’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성화과정’이란 말을 뜻한다. 이는 곧 충만하고 균형 있는 인격발달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신의 무의식을 통하여 말할 때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함으로써 실현 될 수 있다. 융에 의하면, 무의식은 자체를 민담과 신화로 표현 한다: 그리고 모든 신화들이 개성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융은 신화나 민담은 우리에게 보다 충만한 ‘자기실현’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는 길잡이라는 것이다. 에릭 에크로이드, 김병준 역, 『꿈 상징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p.71.

(그런데 본 필자는 자기실현 또는 인격성숙의 구도가 신화나 민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대문학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5) 그림자인격과 의식의 주체인 에고와의 싸움은 두 가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착하고 하나는 쌍둥이나 형제 이야기를 신화와 문학에 많이 등장하며, 심리발달에 있어서의 자아와 얼터 에고(alter ego, 또 다른 자아)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서로 상극인 쌍둥이 혹은 형제들은 합쳐서 온전한 인격체를 이룬다. 마찬가지로 의식적 자아와 거부된 자아(그림자인격)가 통합될 때 사람은 온전한 상태(인격)로 나아가게 된다. 어린이의 의식적 자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 일부는 우리가 세상에 내보이는 얼굴, 즉 가면이다. 그 인격체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문화의 요구에 부응하고 이상적 자아를 자기가 속한 세상의 기대와 가치관에 맞추어나가게 된다. 비벌리 엔젤, 『이중인격- 지킬 하이드 신드롬』, 최정숙 역, 미래의 창, 2007, p.87.

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면, 강력한 투사일수록 자기실현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 즉, 변환직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본고는 두 소설에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미개한 동물들을 향해 드러내는 그림자인격 투사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각각의 인물들이 그 자신들의 그림자인격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보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 ‘그림자인격’이란 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최인호의 「개미의 탑」·장정일의 「펠리컨」이 지닌 환상적·초월적 구조를 분석하고 그 문학적 의미를 추출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사회가 물질적 결핍으로 인한 문제점 보다는 정신적 가치의 붕괴로 인한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사회임이 분명하며, 현대소설 역시 인물들의 심리적 징후들에 의해 구조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고의 핵심은 두 소설의 환상적·초월적 구조 자체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행동 양상을 드러내 보이는 인물들에서 포착되는 그림자인격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림자인격이 목적하는 바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면 그림자인격을 의식화(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작품에서 어떤 구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어떠한 문학적 의미를 지니는가를 밝혀내는 데 있다.

우리 현대소설에는 최인호의 「개미의 탑」·장정일의 「펠리컨」 외에도 환상적·초월적 구조를 보이는 작품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박상룡의 『죽음의 한 연구』·이청준의 「과녁」·신경숙의 「마당에 관한 짧은 얘기」·이평재의 「푸른 고리 문어와의 섹스」·김영하의 「피뢰침」·김별아의 「삭매와 자미」 등에서도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데, 필자는 추후에도 이러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심리학적 분석을 시도해나갈 계획이다.

본고는 그림자인격과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두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

6) 투사(projective)란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욕구나 소망이 마치 다른 사람의 특성인 것처럼 생각하여 그 사람에게 투영되는 것으로서 망상적인 방어기제이다. 투사 시, 주체의 주관적인 감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속한 속성으로 간주되어 객관적인 세계 안에서 살게 된다. 따라서 투사의 성격은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불안에 대한 방어로 보일 수 있다. 투사 순간, 문제는 내용은 통제되고 개인은 (일시적인) 해방감과 안락감을 느낀다. 양자택일로 선택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느껴진 인격의 모습들은 나쁘거나 파괴적으로 상상되는 인격의 나머지 부분들로부터 좋은 모습들을 보호받기 위해 투사될 수 있다. 경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기관 혹은 집단)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느낀다. 또한 그것을 그 사람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여긴다. 나중에 그는 이것이 꼭 경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최적 수준을 넘어서는 투사가 초래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결과는 인격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유아 시절에는 정상적이었던 투사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병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심리학에서는 투사가 강조되는데, 이는 자의식이 내면세계의 내용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단이다. 김상인, 『상당심리용어사전』, 생명의샘가, 2005, p.176. : A.새뮤얼 외, 민혜숙 역, 『융비평사전』, 동문선, 1986, pp.187~188 참조.

현대소설에 나타난 그림자인격 인식과 의미 5

는 ‘갈등’과 그에 따른 ‘죽음’ 모티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인물들에서 표출되는 심리적 징후들에 대하여 병리적 양상으로 보지 않고, 그것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추구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개미’나 ‘펠리컨’과 같은 미개한 동물들을 향해 분노와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인물들의 비합리적 사고와 비정상적 행동 양상에 주목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림자인격의 실체와 그것이 목적하는 바를 밝혀나가는 작업이 본 연구가 상정하고 있는 그림자인격인식의 성격이다. 갈등 구조에 있어서는 두 소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동물들의 특성과 그것들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 등이 핵심적인 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심리학은 무엇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지를 ‘무의식’이 의식적 ‘자아’보다 훨씬 더 잘 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지혜와 능력을 담고 있는 무의식은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자기성취적인 완전한 삶에 이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의식적자아가 무의식으로 하여금 정신을 대신하여 좌지우지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의식은 심원한 지혜와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동시에 자신이 자유롭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경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힘도 포함하고 있다. 심리학은 이러한 무의식이 가진 힘을 ‘콤플렉스’라고 부른다. 이 콤플렉스가 의식과 융화되지 못하게 될 경우 즉, 의식의 밝은 빛으로 나오지 못할 때 그것은 곧 신경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⁷⁾ 부연하면, 심각한 신경증(노이로제)은 무의식의 내용들이 의식세계로 범람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심리적 징후에는 목적과 의미가 있고, 신경증은 그 자신의 인격의 변환과 성숙, 그리고 정신의 통일 즉, ‘전체성(Wholeness)’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⁹⁾임을 주장하는 심리학의 태도에서 본고는 시작된다.

본 필자가 두 소설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학의 개념을 원용한 연구는 논리적인 해명이 불가능한 환상적·초월적 구조와 그에 따른 ‘그림자인격’의 문제에 접근을 용이하게 해 줄뿐 아니라 무엇보다 ‘죽음’을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접근하지 않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다룰 수 있게 해

7) 에릭 에크로이드, 앞의 책, p.68.

6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두 소설이 구현하고 있는 그림자인격에 주목하고 그림자인격의 양상과 의미가 ‘자기실현’ 또는 ‘인격성숙’의 성격으로 수용되는 근거를 도출하게 될 것이다.

2. 최인호의 「개미의 탑」의 구조와 그림자인격과의 상관성

소설 속에서 ‘그’는 회사에 출근해서는 기업이 상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 출시한 음료수 광고 카피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가 하면, 퇴근해서는 또 다시 개미들의 습격을 받고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런 대립적 주제는 흔히 세속적인 성공의 허망함과 인간의 고상한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한 세상을 폭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만으로는 주인공이 미개한 동물인 개미를 향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공포감’을 보이다 마침내 그 개미들을 퇴치하기 위한 한 방법의 일환으로서 그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버리는 환상적·초월적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의식’과 ‘무의식’의 갈등에서 기인하는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갈등을 극복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일방적인 편향을 피하도록 하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진다.⁹⁾ 이 같은 구조 속

8) 정신(의식, 무의식)의 전체성(Wholeness)에서 마음(의식)이 차지하는 것은 매우 작은 부분이다. 이 작은 의식의 세계는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에 비유된다. 이 의식의 중심에는 ‘자아’가 위치하고 있는데, 의식의 존재는 정신의 내용을 이 ‘자아’와 관계시키는 기능이자 활동으로 정의 된다. 이 의식은 모든 외적이고 내적인 세계의 경험이 지각되기 위해서는 중심인 자아를 거쳐야 한다. 부연하면, 스스로가 의식하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의 생각과 마음, 느낌, 이념, 자신의 과거 혹은 미래, 스스로가 알고 있는 세계 또는 자아를 통해서 연상되는 모든 정신적 내용이 의식이다. 그런데 마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과 우리 자신이 모르는 마음 즉, 무의식이 있다. 이러한 의식과 무의식이 합일된 상태를 전일성 또는 전체성이라고 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전체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심리학상 아기의 탄생은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의 탄생에 비유된다. 무의식의 삶과 의식의 삶의 원리는 확연하게 다르다. 의식이 합리적·논리적·규범적·도덕적 원리가 적용된다면, 무의식은 비합리적·본능적·초월적·기질적 원리가 적용된다. 자궁 밖으로 나온 아이는 비합리적 무의식의 세계를 벗어나서 합리적인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식)는 외상을 경험한다. 그 경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물이 콤플렉스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라면서 이것은 약화되고 분화된 어떤 것 안에서 재형성 된다. 그런데 Self로 표현되는 이이 전체성의 성취는 일종의 온전한 건강과도 같은 것인데, 그 자체로 잠재력이자 능력인 동시에 인생의 목표나 목적이기도 한 것이다. 이는 사람들 혹은 환경과 상호작용 하면서 전체성의 성취가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한다. 한국용연구원 C·G 융저작변영위원회, 『원형과 무의식』, 숲, pp.205~207 참조.

9) 최정운 외, 『이상심리학』, 학지사, 2008, p.3.

에는 잠재된 거대한 세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을 육안으로만 바라보는 과학적 논리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과학적 사고와 철학적 사고의 특성을 포함하는 심리학을 통해서만이 환상적·초월적 구조 속에 숨은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1) 그림자인격의 실체

그림자인격은 도덕적·윤리적 또는 그 밖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무의식에 억압된 열등한 인격체로 자기실현의 과정에서 반드시 의식세계로 통합되어야 하는 심리적 특징들을 뜻한다. 그림자인격은 의식의 원칙에 대해 무조건 반대되는 즉, 비합리적 사고와 비정상적인 태도 양상을 취한다. 그림자인격을 타인(동물 또는 사물)에게서 발견하게 될 경우 투사로 규정된다. 그림자인격은 그 자신이 외부 대상에 투사되면, 그 대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노출한다. 그림자인격이 외계의 대상으로 투사되거나 자아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 그 자체가 미숙하고 미분화된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자아가 이를 받아들이길 거부한다. 부연하면, 투사는 주체의 무의식적 내용물이 객체로 전이되어 그것이 마치 객체에 속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무의식의 자동과정을 의미한다. 투사 시, 주관적인 감정은 외부 세계에 속한 속성으로 간주되어 객관적인 세계 안에서 살게 됨으로써 그 자신은 완전히 무의식의 포로가 된다. 투사는 그 자신이 가진 용납할 수 없는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특질을 자아가 자각하지 않으려는 일련의 정신(무의식) 과정이다. 그러나 그것이 의식화되어 밝은 빛을 보게 될 경우에는 그림자인격은 곧 창조적이며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림자인격은 단지 악(惡)의 기능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선(善)의 기능도 동시에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부연하면, 자아가 외부 세계로 투사된 그림자인격을 다시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 의식에 통합시킴으로써 의식의 세계는 더 넓고 깊은 자기 성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10) 새무얼 외, 앞의 책, pp.244~245.

8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그림자인격의 실체는 자아의 특질이 일방적으로 외부(外部) 세계로 향하고 있을 때, 정신의 균형이 깨지면서 반대편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어두운 내부(内部) 인격(심리)체를 의미한다.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이 깨지면 정신의 부조화가 일어나는데, 마치 물지게 양 끝에 매달린 두 양동이에 담긴 물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평형각각을 잃은 물지게가 기울어지면서 한쪽 양동이의 물이 바닥으로 쏟아지는 이치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식이 무의식에 비해 지나치게 외부 세계로만 치우칠 경우 무의식이 범람한다. 무의식의 범람은 곧 의식의 팽창(과장)을 뜻한다. 이런 논리로 보면, 의식적 자아와 무의식의 그림자는 같은 원천에서 만들어지고 서로 정확한 균형을 이룬다.’”¹¹⁾고 말할 수 있다.

‘그가 개미들과 벌이는 전쟁은 ‘그’의 무의식이 일방적으로 카피라이터(일)에만 치우침으로써 무의식에 노출된 ‘그’ 자신의 자아에게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 같이 무의식의 성격은 항상 어떤 목적성(전략)을 가지고 행동하기를 즐겨한다. ‘그’가 개미들을 향해 드러내는 공포감은 ‘그’의 의식 → 무의식으로 추방된 어두운 인격체의 한 측면이 미분화된 상태로 무의식에 머물다 마침내 억압의 방풍벽을 뚫고 의식의 수면위로 올라온 그림자인격의 실체이다.

아래 예문들에서 개미들이 출현하는 장면들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① “벌레라구요. (...중략...) “뭔지 모르겠어요. 간밤에 먹던 사과 있잖아요. 반 먹다 남긴 사과. 술이 취해서 사과를 반쯤 먹다 잠이 들었어요. (...중략...) 그래서 다시 무심코 사과를 먹으려고 한입 베어 물었더니 글썽 그 사과에 벌레들이, 벌레들이.....” 최인호의 「개미의 탑」,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3, 『즐거운 우리들의 천국』, 문학동네, 2002, p.263.(이하 최인호). 밑줄: 필자

② 그는 흰 사과의 속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새까맣게 매어 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중략...) 놀랍게도 그것은 수많은 개미들이 모여서 이룬 무늬였었다. 마치 일식

11) 로버트 존슨, 고희경 역,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어요』, 에코의서재, 2008, p.34.

(日蝕) 때 밝은 태양을 먹어 들어가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사과와 흰 속살은 집요하게 군집한 개미들의 무리로 침식되어 있었다. 최인호, p.266. 밑줄: 필자

③ 한두 마리의 개미가 아니다. (...중략...)방 안 구석구석에서, 천장에서 욕탕에서 부엌에서 살아 있는 발레들이 서로서로에게 얘기를 하고 때를 지어 그가 살고 있는 주위를 맴돌며 염탐을 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목표가 정해지면 주저함이 없이 먹이를 향해 행군하는 집단의 떼, 집단의 공격, 집단의 시위가 가까운 곳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 깨달았다. 최인호, pp.269~270 밑줄: 필자

예문①사과 안쪽에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던 개미들이 그 사과와 함께 여인의 입 속으로 들어간 순간 그녀는 심한 욕지기를 하며 욕실로 향한다. 이때 ‘그’가 침대 위에 놓인 사과를 보게 되었다. 개미들을 처음 목격한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어젯밤 ‘그’가 술에 몹시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데려온 모르는 여자이다. 매일같이 낯선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성관계를 맺는 ‘그’의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건강한 정신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곧 ‘그’의 현실적 삶이 얼마나 황폐한가를 말해준다. ②사과의 흰 속살에 새까맣게 달라붙은 개미들을 보는 순간, ‘그’는 그것이 마치 일식 때 밝은 태양을 먹어 들어가는 어두운 ‘그림자’와 같다고 생각한다. 이때 개미들에게 먹힘을 당하는 태양에 비유된 ‘사과’는 곧 외부세계(페르소나)를 향해 질주하던 ‘그’의 의식이 개미(무의식)에 의해 침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③개미들이 떼를 지어 ‘그’의 공간을 침식해 들어오자 ‘그’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한다.

2) 주인공의 성격

‘그’는 경쟁이 치열한 조직사회에서 일개미처럼 열심히 일하지만 ‘그’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매번 소비자의 감성을 더 강하게 자극하는 광고문안을 작성하여 시장을 공격하라는 광고주의 끈질긴 요구뿐이었다. 카피라이터는 소비자들 무엇이 원하는지 읽어내야 하고, 소비자들의 감성을 현혹하는 광고 문구를 만들어 그 소비자들로 하여금 광고된 상품주위로 개미떼들처럼 몰려들게

10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할 의무가 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과 성적 쾌감을 은밀하게 자극하는 광고 카피를 만들어내야만 하는데, 그 일은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 일이란 돈을 번다는 기본적인 의미 외에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즐거움도 배가된다. 그런데 소비자를 현혹시킬 광고문안은 점점 더 치열한데 반해, ‘그’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광고문안의 범람 속에서 무디어 질대로 무디어진 소비자들의 눈을 유혹할만한 아이디어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비인간적인 사회규범 속에서 돈과 쾌락을 얻기 위해 질주하는 세상에 편성된 자신을 지탱할 에너지조차도 고갈된 상태이다. ‘그’가 이토록 심각한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된 데에는, 이제까지 ‘그’의 고유한 ‘자기 자신(사적자아)’을 억압하고 오로지 조직사회가 요구하는 일(공적자아)에만 몰두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그를 향해 일제히 공격해오는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 ‘그’를 공격해온 적군은 다름 아닌 개미들이다. 개미들의 습격은 ‘그’의 정신에너지가 페르소나(일)에 집중적으로 배분되는 과정에서 정신의 균형이 깨지게 되자, 무의식이 자아를 향해 내보내는 일종의 경계 신호로 보인다. 따라서 ‘그’가 밤마다 술과 여자를 찾는 것은 ‘그’ 자신이 주색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술에 취해 무감각할 때만이 부조리한 현실적 삶에서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매일 밤, 스스로를 술로 달래고 알지 못하는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래 예문들에서 이 같은 그의 현실적 삶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① 회사에 출근하고 나서 그는 하루 종일 시달렸다. 그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광고 회사였고, 그가 하는 일은 그에게 주문한 회사에서 신 발매하는 새로운 상품들을 선전해 주는 일체의 광고를 대행하는 일이었다. 최인호, p.236. 밑줄: 필자

②아이디어에서 CM송, 광고, 문안, 광고 필름, 그 모든 것을 거의 혼자서 해치워야만 하였다. 그는 모든 상품을 취급하였다. 과자류에서부터 식품, 생리대, 화장품, 가구, 의복, 약품…… 그 모든 것에 대해 문안을 쓰고 광고 필름을 찍고 또한 현상을 해야 했다. 최인호, p.277. 밑줄: 필자

현대소설에 나타난 그림자인격 인식과 의미 11

③ 그는 H제과에서 나오는 새로운 음료수의 광고 아이디어에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그것은 짧아 한 입에 발음되어질 수 있는 단어로 강렬하고 인상적인 맛의 표현이어야 했으며, 그 맛의 표현이 상품의 대명사처럼 연상되어질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어야만 했다. 그 맛을 표현하기 위해 그는 하루에도 수십 병씩 그 음료수를 마셔대곤 했었다. 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음료수를 마시게 하였으며 그리고 그 음료수를 마신 최초의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기를 요구하곤 했었다. 최인호, p.278. 밑줄: 필자

④ 그는 간밤에 엉망으로 술을 마셨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상반신을 일으켜려니가 머리가 찢어지는 듯 아파왔다. (…중략…) 그는 아무래도 이 여인이 미친 여인이라고 단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중략…) 그는 도대체 이 낯선 여인이 왜 자기 옆에 벌거벗고 누워 있는 걸일까 잠시 생각해 보았다. 최인호, p.263. 밑줄: 필자

예문①②③의 공통점은 ‘그’가 회사의 모든 업무 즉,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해서 CM송, 광고문안, 광고필름, 등과 같은 일을 혼자서 다 해치우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그’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지만 탈진한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④ ‘그’는 매일 취한 상태에서 알지 못하는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성관계를 맺는다. 그것은 곧 ‘그’의 리비도(libido: 삶·정신·인격·에너지)의 에너지가 그 자신의 ‘아니마(anima: 그 남성이 지닌 여성형의 심혼(心魂)을 뜻함)’¹²⁾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활성화시킴으로써 ‘그’가 점점 무의식의 포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숨 막히는 일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적응 실패’를 불러온 동시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송두리째

12) 아니마(anima)와 아니무스(animus)는 우리 마음속의 ‘혼’이나 ‘넋’과 같다. ‘혼’이나 ‘넋’ 그리고 ‘심령’이란 단어들은 모두 자아의식을 초월하는 성질의 표현이다. 융은 무의식 속에 그와 같은 독자적 인격이라 할만한 것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는 ‘내적인격’이라 불려 집단사회에 적응하는 가운데 형성된 ‘외적인격’인 페르소나에 대응하는 무의식적 인격이다. 외적 인격이 타고난 성(性)에 따라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성을 나타낸다. 남성의 무의식의 내적인격은 여성적 속성을, 여성의 무의식의 내적인격은 남성적 속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니마·아니무스는 우리 정신 안에서 무의식의 이미지와 연결시켜 자아를 의식의 세계로만 몰두하지 않게 함과 동시에 정신의 전체적인 통합을 지향해 나아가게 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는 정신의 요소로 매우 중요하다. 이부영,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2001, pp.44~47.

12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상실한 데서 기인한다. 때문에 ‘그’의 리비도는 더 이상 의식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의식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무의식에 노출된 리비도의 에너지는 사라져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그’가 매일 밤, 술에 취해 모르는 여자를 집에 데려오는 것도 ‘그’의 의식적 자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노출된 리비도의 에너지에 의해서다. 무기력한 ‘그’의 태도는 무의식으로 전락한 리비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팽창을 이루게 된 거대한 아니마 형상이 ‘그’ 자신의 자아를 압도하여 ‘그’가 인격붕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그’는 지금 다양한 여성들과 유희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의 부정적인 아니마 속에 감추어진 그림자인격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3) 개미의 성격과 의미

정신(무의식)의 특성은 인격의 한 측면을 경시하면, 무시당한 측면은 이상한(자신이 원하지 않은 엉뚱한) 방법으로 그 자신의 존재를 표현할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의 의식적 자아로부터 무시당한 무의식의 그림자인격은 개미들이 가진 동물적 성격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개미들이 처음부터 ‘그’의 방안을 침투해 들어온 것은 아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의 공간에는 단 한 마리의 개미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 ‘그’가 카피라이터라고 하는 페르소나(공적 자아)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충족시키는 태도를 취하면서부터 개미들의 출현도 시작되었다. 이는 일방적으로 외부세계 즉, 페르소나에 치우친 자아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그’의 무의식(정신)이 ‘그’ 자신의 그림자인격을 외부(의식적)세계 대상인 개미들에게 투사한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빛의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 빛이 지나치게 강렬한 사막에서는 생명체가 살수 없다. 마찬가지로 의식도 일방적으로 외부세계만을 지향하게 되면, 의식적 자아는 살아갈 터전을 잃고 만다. ‘그’는 매일 밤, 개미들과의 전쟁을 벌이면서도 그 개미들의 존재가 바로 자신의 무의식에 억압된 심리적 실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개미들이 ‘그’를 향해 공격해오는 것은 ‘그’ 자신을 괴롭히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

고, 지나치게 외부 세계로만 치우침으로써 위험에 노출된 ‘그’의 자아로 하여금 궤도수정을 하게 하려는 무의식의 전략(목적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마음의 총체적인 성취에 의해 삶의 방향을 제공하는 것은 언제나 의식이지만, 무의식 또한 의식처럼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지휘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그림자인격 인식

‘그’는 개미들을 제거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한다. 돌진하는 개미들을 손톱으로 눌러 죽이기도 하고, 공격해오는 개미를 향해 뜨거운 물을 붓기도 하고, 방한 가득 살충제를 살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로 몽땅 쏟아 불에 태우기까지 한다. 그런데 퇴치는커녕 개미들은 점점 더 극성을 부렸다. 그렇게 되자 개미들을 제거하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그’가 마침내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스스로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다.

① 그가 아끼던 화분의 꽃들 위에도 개미들이 새카맣게 몰려 있었다. 꽃은 시들어가고 있었다. 개미들의 공격에 의해서. (...중략...) 벽시계는 죽어 있었다. 최인호, pp.298~299.

② 그는 자기가 그들에게서 벗어나려 했던 지난 며칠간의 싸움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느꼈다. 이제는 그들과 화해하는 일만 남아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제는 그들에게 내가 백기를 들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는 결정을 내렸다. 최인호, p.299.

③ 그는 이제 그가 죽었던 수억 마리의 개미들이 들끓던 방 안에 누웠다. (...중략...) 어찌면 다가오는 아침에는 백골만 남을지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그들의 제물(祭物)이 되었으므로, 그들과 화해했으므로, 보이지 않는 벽면에서 여섯 개의 발을 가진 짐승의 발소리가 조금씩 들려오기

1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시작했다. 그는 비로소 안심했다. 최인호, p.299.

위 예문①개미들의 공격에 의해 백기를 든 것은 주인공뿐만이 아니다. ‘그’의 방안에 있는 시들어가는 꽃들과 완전히 멈추어버린 시계 바늘 등도 다르지 않다. 시들어버린 꽃이 ‘그’의 의식을 대표하는 예고가 무의식에 의해 먹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멈추어버린 시계 바늘은 ‘그’의 의식이 이미 무의식에 완전히 굴복되었음을 뜻한다. 어느 순간, ‘그’가 개미들을 퇴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의 몸을 퇴치할 것을 결심한다. 이는 곧 ‘그’의 자아가 페르소나(일)의 욕망을 접고 무의식에 굴복하려는 변화된 모습이다. ②‘그’는 자신이 할 일은 오로지 개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화해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가 발가벗은 몸으로 방안에 눕자, 기렸다는 듯이 질주하던 개미들이 ‘그’의 알몸을 향해 하나 둘씩 점령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 순간 ‘그’의 몸이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개미는 ‘그’ 자신의 무의식을 뜻한다. ‘그’의 몸과 개미들이 하나 된 모습은 ‘그’의 의식과 무의식의 합일 즉, 정신의 통합을 예고하는 것이다.

살펴본 바, ‘그’가 매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르는 여자들을 집으로 데려와 성행위를 하는 것이나, 미개한 개미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비정상적인 행동 양상 등은 모두 ‘그’의 의식적자아가 그림자인격을 의식화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정신여정이었다. 이는 ‘그’가 유능한 카피라이터로 사육(飼育)되면서 개인의 인격과 꿈, 창조적 정신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그’의 정신 에너지가 균형을 잃게 됨으로써 범람한 무의식(그림자인격)이 ‘그’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 것이다. 말미에서 ‘그’가 스스로의 몸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기보다는 이제까지 살아온 카피라이터의 삶은 죽고, 고유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남을 「개미의 탑」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장정일의 「펠리컨」에 나타나는 그림자인격과 투사 양상

소설 속 ‘나’는 엘리트 신분이면서 경제적 여유까지 있지만, 세계와 화합하지

못한다. 이런 ‘나’가 처음부터 세계와 화합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나’는 날개에 입은 상처로 인해 날지 못하는 펠리컨을 대면한 순간부터 그 새를 향해 강한 분노와 적대감을 분출하기 시작했다. 이는 ‘어떤 것’에 대한 결핍의 신호로서 의식의 변화와 보상을 요하는 무의식의 경계 신호로 부모 부재로 인한 콤플렉스에서 기인한다. ‘나’는 아버지의 부재(사망) 상태에서 어머니마저 증폭으로 꿈쩍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아나 다름없다. 아버지의 부재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머니가 증폭으로 10년 째 누웠다고 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나’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분리불안 장애적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스트레스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어린아이는 부모로부터 분리되면, 그 부모에 대한 가치도 함께 사라진다. 그러나 의식에서 사라진 이 가치는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 안에 그림자인격으로 살아남는다. ‘나’가 펠리컨을 향해 드러내는 심리적 징후는 억압에 노출된 그림자인격이 의식의 수면 위를 뚫고 올라와 외부세계 대상을 향해 투사된 모습이다.

1) 그림자인격의 특성과 의미

소설 속에서 그림자인격의 투사는 여러 대상들에서 드러나지만, 특히 펠리컨과 마주칠 때 ‘나’의 의식적 태도에서 강렬하게 표출된다. ‘나’는 펠리컨뿐만이 아니라 펠리컨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대상들에게까지도 분노와 적대감을 드러내 보인다. 이를 테면, 거지소년을 향해 “펠리컨 같은 놈!”이라며 화를 내는가 하면,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 좀 해 달라”고 하는 목사친구에게도 “펠리컨 같은 놈!”이라고 속으로 욕한다. 심지어는 누워 있는 노모마저 “어머니는 입이 큰 펠리컨과 같다”고 생각한다. ‘나’에게서 드러나는 이러한 태도는 ‘나’의 무의식에 억압된 심리적 실체 즉, 그림자인격이 투사된 때문이다.

자아의 특성은 그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우월기능을 발전시키는 태도에만 주력함으로써 열등한 기능을 돌보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진다. 그 정도가 지나치면 무의식의 세력에 의해 자아가 보상작용을 일으킨다. 이때 자아가 가진 다양한 기능에 혼란을 가져옴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균열을 불러오게 된다. 그런데 펠리컨을 향해 표출되는 ‘나’의 공격성 에너지의 범람은 절망스러운 일

16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생의 후반부’¹³⁾에 접어들면 ‘낡은 통로에서 새로운 통로로 정신 에너지를 전환하는 시기가 있게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장애물(고통)의 극복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¹⁴⁾ 따라서 ‘나’의 자아가 무의식을 향해 궤도수정을 보이는 것은 의식을 낳은 실체가 무의식이므로 의식이 본래의 자기(무의식)에게로 돌아가려는 태도는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2) 주인공의 성격: 부모 부재 콤플렉스

아이에게 있어 ‘부모의 존재는 가장 가깝고도 영향력이 많은 대상이다. 때문에 부모가 사망해도 그 부모상(像)은 그 아이의 무의식에 남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원시인들은 늦은 밤에 돌아오는 부모의 귀령을 이야기 한다. 이런 경우, 현대인은 ‘부모 콤플렉스’라 부른다.’¹⁵⁾

‘나는 내면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보다는 ‘나’ 자신이 지닌 우월한 정신적 기능에만 치우친 나머지 열등한 모습 즉, 그림자인격을 몰아냄으로써 양분된 영역을 끊임없이 오가며 정신적 혼란에 빠진다. ‘나’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부모 부재에서 오는 다양한 콤플렉스가 치유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억압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서 드러나는 공격성 에너지가 단순히 부모 부재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다. 단지 새로운 정신의 통합에 이르는 전제조건 중 부모 부재에서 오는 콤플렉스가 비중이 클 뿐이다. 아래 예문들을 보자.

13) 심리학에서는 35세~40세 이전을 생애 전반부로, 35세~40세 이후를 생애 후반부로 구분하고 있다. 생애 전반부에는 ‘의식’을 획득하고 ‘의식’의 주체가 되도록 자기정립을 시도하면서 개별인간으로서 실현해야 한다면, 생애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그 제한적인 개별적 가치를 보편적인 가치로 다시 확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이 개별의식은 변환을 하여 인간의 보편적 이념을 실현하게 된다. 부연하면, 생애 전반부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의식의 확장을, 생애 후반부에 이르면,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을 이루려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유경, 『영웅과 신화』, 이끌리오, 2004, p.270 참조.

14) 캘빈 S. 홀, 김형섭 역, 『융심리학입문』, 문예출판사, p.150.

15)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영위원회, 『인격과 전이』, 솔, 2004, pp.93~109.

현대소설에 나타난 그림자인격 인식과 의미 17

① 나는 자가용이 없다. 까짓, 자동차 하나 마련할라치면 아버님이 유산으로 남긴 저금통장으로 약간의 금액을 되찾으면 되겠지만, 별써 10년간을 중풍으로 꼼짝 못 하시는 어머니를 두고 나만의 편의를 위해 자가용을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장정일, 『펠리컨』, 장정일 소설집, 『아담이 눈을 뜰 때』, 미학사, 1990.(이하 장정일), p.267.
 밑줄: 필자

위 예문①에서 보듯이 ‘나’에게는 아버지가 물려준 충분한 돈이 있지만 ‘나’는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 자가용을 사지 못한다. 그것은 거동도 못하는 노모의 존재가 ‘나’의 양심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가 집에서든 밖에서든 잠시도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타자와의 극심한 불협화음 속에서 나날을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이에게 있어 ‘부모’는 단순히 개인적인 인격자로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경험을 가져오는 위대한 존재로서 다가온다. 설령 보잘 것 없는 처지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만큼 ‘부모’라는 단어에는 ‘마술적 힘’이 담겨져 있다. ‘마술적 힘’이란 곧 그 아이 자신이 획득한 것이 아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도 모르는 소유하고 있는 많은 유전적인 요인을 뜻한다. 아이가 성장해가면서 부모라는 가족구성원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 부모상이 적절한 대치 → 상으로 넘겨진다. 이를 테면,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 아내 또는 모성을 떠올릴만한 자애로운 여성인물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에 반해 아버지의 권위는 점차 존경받는 인물들 → 윗사람, 혹은 선생님이거나 신부님과 같은 존경과 권위를 상징하는 인물들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아들에게 있어 아버지상은 도덕적 법의 대표자로서 객관적 사실 뿐 아니라 그 자신 안에 있는 주관적 정신의 요소로 작용한다.

3) 흑·백의 이미지

장정일의 『펠리컨』에는 흑·백 이미지가 대극을 이룬다. 백색은 하얀 마스크, 흰색 포크니, 하얀 쇠고리, 어머니의 허연 눈, 등에서 드러난다. 반면에, 검은 색은 검은 색의 펠리컨, 검은 창녀, 육교 위 거지의 새까만 얼굴, 검은 깃털, 검은

18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은 지프 등이다. 심리학상 흰색은 발달된 ‘의식’을 뜻하는데 반해 검은 색은 발달되지 않은 내면의 ‘무의식’을 의미한다. 검은 색은 그 색 자체가 지닌 어두운 느낌 때문에 종종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기도 한다. 특히 검은 색을 띠는 동물은 무의식의 억압된 충동이나 정서일 수 있는데, 검은 펠리컨은 ‘나’에게 억압된 ‘어떤 것’을 표현하게 하는 무의식의 경계 신호로 보인다. 그러나 캄캄한 밤이 지나고 나면 밝은 아침이 찾아오듯이, 검은 색에는 밝은 빛(희망)의 의미가 담겨 있게 마련이다. 고대 ‘연금술사들에게 자주 생기는 환상 중 한 가지는 금(밝은 빛)으로 변하기를 바랐던 물질이 처음에는 검었다’¹⁶⁾고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검은 색을 띤 펠리컨이 그리 부정적인이지만은 않아 보인다.

삶에서 흑·백이 주는 긴장감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특히 그 중에서 바둑을 빼놓을 수 없다. 바둑에서 검은 돌과 흰 돌은 서로 한 치의 양보를 하지 않고 대결한다. 흔히 정신적 여유를 빼앗겨 버렸을 때 ‘머리 속이 하얗게 되어버렸다’고 하고, 또 양심이 결여된 사람을 가리켜 ‘속이 시커먼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정신의 균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흑·백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머지않아 ‘나’의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 즉, 그림자인격인식을 예고하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

4) 그림자인격의 투사 양상

‘나’의 무의식에 억압된 다양한 심리적 실체는 ‘나’가 일상적 삶에서 상처투성이의 펠리컨, 초라한 거지소년, 기부를 권하는 목사친구, 그리고 성의 사냥꾼인 창녀, 병든 노모 등과 마주친 순간 강한 적대감과 극심한 분노가 표출되는 과정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특히 펠리컨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치밀어오는 저항감과 격한 감정, 심지어는 살의 충동까지 느낀다. ‘나’의 이런 부정적 감정은 ‘나’ 자신의 그림자인격과 펠리컨이 ‘동일시’된 때문이다. 즉, ‘나’의 무의식에 억압된 잠재적 에너지가 의식 밖으로 범람하는 것으로 새로운 가치와

16) 마이 루이제 폰 프란츠, 박현순 외 역, 『융학파의 꿈해석』, 학지사, 1998, p.146 참조.

현대소설에 나타난 그림자인격 인식과 의미 19

새로운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하려는 정신(무의식)의 목적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① 날개깃 속에 제 머리를 파묻고 웅크린 그놈의 옆구리를 뱀다 걷어찼다.(…중략…)놈은 어디선가 날개를 상하였는지, 왼쪽 깃으로 땅바닥을 빗자루처럼 쓸면서 한 두 발쯤 걸다가 다시 쿵, 스러져 웅크렸고, 약간은 더 잔인스러워진 심정으로, 나는 다시 그놈의 배대기를 걷어찼다. 장정일, pp.265~266. 밑줄: 필자

② 죽으려면, 나가서 죽으라고 나는 더 세찬 발길질을 퍼부었으나 놈은 바위처럼 꼼짝도 않는다. 그러면서도 놈은 알뜰게도, 껍뻑, 소리를 질러댔다. (…중략…) 그놈은 내가 걷어찰 때마다, 적의로 번뜩이는 눈망울을 굴리며 꼭 이웃집의 구원을 청하는, 매 맞는 아내같이 껍뻑거렸었다. 장정일, p.266. 밑줄: 필자

③ 나는 처음부터 놈을 마당 한복판에서 발길질할 것이 아니라 은밀한 지하실이나 연탄창고 같은 곳으로 데려가 원치 않았던 태아의 목에 텃줄을 감아 죽이듯 아무도 몰래 그놈의 목에 빨랫줄을 감아 죽였거나, 한 달 전에 새로 샀던 신형냉장고의 마분지 박스로 그놈의 등판을 내리눌러 죽였을 것이다. 장정일, pp.266~267. 밑줄: 필자

예문①②의 공통된 내용은 ‘나’가 펠리컨을 향해 드러내는 적대감으로서 그림자인격의 투사이다. ③급기야는 분노가 극에 달한 ‘나’가 살의 충동까지 느끼는데, 펠리컨의 존재가 암울한 현실에 발목이 묶인 ‘나’의 처지와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나’의 날개를 꺾은 것은 무의식에 살아 있는 아버지상과 병든 어머니에 대한 ‘나’의 양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다. 이는 곧 ‘나’가 아동기에 겪은 부모 부재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작용하는 양가적 심리과정에서 기인한다.

아래 예문들을 보자.

① 사형이 언도되었다. 나는 울부짖었다. (…중략…)내 가슴의 한 쪽은 펠리컨에 대한 증오로 타들어갔고, 양금과도 같은 원한이 한 손가락의 소금같이 내 심장에 쌓였

20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펠리컨에 대한 증오를 차츰차츰 달콤한 설탕처럼 녹여갈 수 있었는데, 그것은 교도소를 출입하며 사형수에 마지막 구원의 은혜를 베푸던 신부님의 말씀에서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정일, p.282. 밑줄: 필자

② “주님을 받아들이시오. 펠리컨을 받아들이시오. 그리스도 또한 한 마리 연약하고 꺾박받던 펠리컨이었소. 아무도 그를 안다고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분이 바로 당신이 박해했던 펠리컨이었소. 본디요 빌라도와 같이 되지 마시오. 그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손을 씻지 않았소? 그 때문에 그리스도는 죽어야 했소. 당신이 펠리컨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것과도 같소.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서, 당신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법이요.” 장정일, p.283.

③ 지금 내 가슴은 후회로 찢어질 듯하다. 나는 내일 죽어야 한다. 어쩌면 죽음도 나와는 상관없이 나의 가슴속 안뜰에 웅크리고 있는 한 마리 펠리컨이었을까. 필시 죽음 또한 거대한 펠리컨의 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일에 다름 아닐는지도 모르겠다. 장정일, pp.283~284.

예문①에서 보듯이 처음 자신에게 사형이 언도된 순간까지도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②③신부님의 충고를 듣는 순간 ‘나’는 그토록 적대시 하던 펠리컨을 받아들인다. 이런 엄청난 변화는 신부님이 아버지처럼 다가옴으로써 ‘나’가 지닌 부성 부재의 과보상(의식의 팽창) 기능이 풀리게 되어 그림자인격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신부님의 존재가 ‘나’의 무의식에 억압된 아버지상과 대치됨을 드러낸다. 부연하면, 신부님이 아버지상으로 대치되는 순간, 억압에 노출된 아버지상이 치유되면서 ‘나’로 하여금 구원과 자유에 이르도록 만 들어주었다.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 볼 때, ‘나’에게서 드러난 그림자인격 투사는 부성 콤플렉스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가 신부님의 존재를 무의식에 억압된 아버지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의식의 힘이 외부의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나’ 자신이 더 이상 그림

현대소설에 나타난 그림자인격 인식과 의미 21

자인격에 종속되지 않음으로써 자기실현에 이르는 길을 올바르게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 부재는 개인 정신의 부조화는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혼란으로 까지 이어진다. 특히 아들에게 있어 부성 부재는 그 자신이 현실적 아버지를 요구하지 않아도 무의식에 존재하는 아버지상이 스스로를 억압한다. 무엇보다 어린시절의 부성 콤플렉스는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와 부딪히면 리비도가 퇴행하여 잊혀졌던 정신적 내용이 재활성화 될 수 있다. 따라서 '나'에게서 드러나는 공격성 에너지는 곧 '나' 자신의 리비도가 퇴행하여 잊고 있던 부성 부재의 내용을 그림자인격으로 재활성화 된 것이다. '나'가 현실적 삶에서 파괴 본능과 같은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는 것은 곧 '나'의 무의식에 살아 있는 그림자인격이 외부세계 대상들과의 의사소통을 피하려는 무의식(정신)의 노력에서 기인한다. 무의식 안에는 개인의 특성 즉, '창조적(성)'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는 정신의 중요한 목적이 담겨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의 그림자인격을 의식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작업이 중요한 것은 무의식의 세계를 인식하는 자기 앎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자인격의 의식화는 자아와 통합하고 자아를 풍부하게, 그리고 보다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나'의 정신(무의식)활동과정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제 내적으로 온전해진 '나'의 앞에는 오로지 삶의 충만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제까지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갔던 부정적 감정들 즉, 소외·공포·적대감·살의 충동 등과 같은 일련의 심리적 징후들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고, 그 고통을 극복하고 끌어안음으로써 '자기실현' 또는 '인격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펠리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7) '창조성'이라는 표현은 되풀이해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잘 처리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창조적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움푹달라 못하게 하는 습관을 고집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또한 체념과 동일시될 수 있는 굴어짐의 자리에 유동성이 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창조적 태도는 곧 새로운 길을 찾는 물과 같은 모습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혼란스러운 경우를 맞이할 때 유용한 도움을 준다. 고유한 인격 또한 이 창조적인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용은 모든 인간은 개성화과정 또는 자기실현이 필연적으로 자신의 본능을 의식하게 된다고 말한다. 베레나 카스트, 원석영 역, 『꿈-당신을 변화시키는 무의식의 힘』, 2007, pp.192~238 참조.

4. 맺음말

이제까지 최인호의 「개미의 탑」·장정일의 소설 「펠리컨」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외부 세계와 화합하지 못하는 각각의 인물들이 그 자신들에게 분노와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미개한 동물들을 향해 끊임없이 열등한 내면을 투사하는 외롭고 고통스런 과정 속에서 그림자인격 인식이 가능할 수 있었다. 소설 속 인물들이 그 자신들이 지닌 어두운 인격체를 인식한다는 것은 밝은 측면을 갈구하는 무의식의 역설적 소망이었다는 것과 자기실현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곧 그림자인격 인식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또한 정신(무의식)활동과정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무의식의 범람에서 오는 심리적 징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주체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균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정신의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두 소설에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들은 그 자신들에서 표출되는 부정적 감정이 바로 그들의 무의식에 살아있는 그림자인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에서 해방됨으로써 마침내 고유한 '자기 자신'들의 실체와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곧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여 개인의 독특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삶의 목적인 '자기실현' 또는 '인격성숙'의 길이었다.

II. 장에서 다룬 최인호의 「개미의 탑」의 핵심적 내용부터 요약해 보도록 한다. '나'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일개미처럼 일을 하지만 광고회사 카피라이터인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소비자의 감성을 더 자극하는 광고 카피를 작성하여 시장을 공격하라고 하는 광고주의 끈질긴 요구뿐이었다. 그런데 '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비인간적인 사회규범 속에서 돈과 쾌락을 얻기 위해 질주하는 세상에 편성된 자신을 지탱할 기력조차 없다. 이런 '나'에게 또다시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개미들까지 '나'를 공격해왔고, '나'는 모든 화풀이를 개미들에게 한다. 이는 '나'의 자아가 외부세계(페르소나, 일)에만 치중함으로써 비롯된 결과였다. '나'로 인해 분별기능을 잃게 된 자아가 개미들을 향해 드러내 보이는 민감한 반응은 바로 '나' 자신의 그림자인격이었다. 그림자인격의 출현은 '나'의 무의식이 '나'의 의식적자아가 지나치게 외부 세계만

을 지향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된 자아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무의식의 전략에 의해 행해진 것이었다.

III. 장에서는 장정일의 「펠리컨」이 논의되었다. ‘나’는 온통 상처뿐인 펠리컨을 향해 적대감과 분노, 살의 충동 등과 같은 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심리적 상태를 드러냈다. 이는 부모 부재에서 오는 억압된 내용이 치유되지 못한 채 ‘나’의 무의식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어린시절에 끼치는 한 쌍의 대극으로 경험되는 ‘부모의 영향’은 둘 중 어느 한 쪽만 존재할 경우 즉, 어머니만 있을 경우 ‘어머니가 존재함’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아버지의 부재함’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부재된 아버지는 아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결핍된 아버지상으로 무의식에 살아남았다. ‘나’는 펠리컨을 확대한 죄로 사형을 언도 받는 순간까지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러다 그리스도 또한 펠리컨과 마찬가지로 하는 신부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펠리컨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 이는 신부님이 ‘나’에게 투사되는 순간, 아버지상과 대치된 때문이었다. 부연하면, 신부님의 존재가 무의식의 아버지상과 대치되는 순간, ‘나’의 결핍이 채워지면서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본 필자는 이때 ‘나’에게 찾아온 깨달음은 신약성서에서 희랍어로 번역되는 ‘회개’ 또는 ‘방향전환’과 동일한 맥락을 가진다고 본다.

흥미로운 사실은 두 소설에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에서 드러나는 성격적 특성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개미의 탑」의 ‘나’는 오로지 사장의 집요한 요구에 모든 것을 다 거는 내향적 특성을 보였다. 이런 ‘나’의 성격은 카피라이터로 사육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지 못하는 단일한 태도에서도 잘 드러났다. 그에 반해 「펠리컨」의 인물은 외향적 특성을 보였다. ‘그’는 갈등을 안으로 삭이기보다는 자신의 콤플렉스를 거침없이 드러냄으로써 주위로부터 반감을 유발시켰다. 그러나 각각의 인물들의 성격적 특성만 다를 뿐이지 두 소설이 공통적으로 구현하는 그림자인격인식의 구조는 동일한 맥락을 가졌다.

두 소설 모두에서 드러나는 죽음은 곧 자아의 죽음일 뿐, 실제 육체의 죽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심리학적으로 자살 충동과 같은 죽음의 욕망은 낡은 자

2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아가 죽고 새로운 인격으로 재생하려는 무의식의 충동을 의미한다. 즉, 이제까지 살아온 그 자신들(삶, 공적자아)은 죽고, 이제부터 그들 앞에는 ‘의미 있는’ 새로운 삶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육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통이 불가피하듯이 정신의 성장과정 또한 내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 따라서 각각의 인물들이 현실적 삶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결코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고, 그 고통을 극복하고 끌어안음으로써 온전한 ‘자기실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두 소설이 보여주었다.

본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누구나 내면에 그림자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목하게 되었다. 또한 두 소설 모두 특별한 심리학적 정보를 제공해 주었을 뿐 아니라 정신활동과정의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도 소중한 가르침을 안겨 주었다. 무엇보다 그림자인격을 의식화하기 위해서는 정신의 궤도수정, (이를 테면, 긴 터널을 벗어난 순간 밝은 길이 나타나듯이) 즉 의식을 대표하는 예고가 무의식으로 굴복하는 과정이 필요했으며, 그 과정에는 반드시 죽음에 버금가는 내적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도 알았다. 자기실현 또는 인격성숙의 길은 자기의 의식에 부족한 측면을 상대방에게 구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 찾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 문헌

- 장정일, 『아담이 눈을 뜰 때』, 미학사, 1990.
- 최인호, 『즐거운 우리들의 천국』, 문학동네, 2002.
- 김상인 편, 『상당심리용어사전』, 생명의 샘가, 2005.
- 이부영,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2001.
- 이유경, 『영웅과 신화』, 이끌리오, 2004.
- 최정운 외, 『이상심리학』, 학지사, 2008.
- 최일남 외, 『흐르는 북』, 푸른사상, 2008.
-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원형과 무의식』, 솔, 2002.
- , 『인격과 전이』, 솔, 2004.
- A. 새뮤얼 외, 민혜숙 역, 『융 분석비평사전』, 동문선, 2000.
- 비벌리 엔젤, 최정숙 역, 『이중인격』, 미래의 창, 2008.
- 베레나 카스트, 원석영 역, 『꿈-당신을 변화시키는 무의식의 힘』, 프로네시스, 2007.
- 에릭 에크로이드, 김병준 역, 『꿈 상징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 에마 융, 박해순 역, 『아니마와 아니무스』, 동문선, 1995.
- 캘빈 S. 홀, 김형섭 역, 『융 심리학 입문』, 문예출판사, 2006.
- 마이 루이제 폰프란츠, 박현순 외 역, 『융학파의 꿈해석』, 학지사, 1998.
- 로버트 존슨, 고혜경 역,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어요』, 에코의서재, 2008.
- 박 진, 「부성 콤플렉스의 분석심리학적 이해-아들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심성연구》 19:(1.2), 2004.
- 이죽내, 「분석심리학의 학문적 성격과 분석심리학 정신치료」, 《원광정신의학》 제10권,
1994.

26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Abstract

A study of shadow personality and semantic network expressed in modern novels

- Based on “Tower of ants” by Inho Choi and “Pelican” by Jungil Jang

Choi, Yun-Ja

One of the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of modern novel is that they deal with severe psychological conflicts people experience in the business like, scientific, and competitive society. Psychological conflicts are expressed through psychological symptoms characters exhibit such as isolation, anxiety, hostility, anger, delusion, and murderous impulse. These are neurotic symptoms that appear as the gap between the conscious mind and the unconscious mind widens when one identifies his/her persona with the conscious self. Neurosis is an expression of one's suppressed complex in the unconscious mind into an object in the external world and it can be seen as a projection of shadow personality psychologically. Characters suffering from such psychological problems appear in modern novels frequently because modern novels deal with inner personalities of modern men who are experiencing confusion about values and living mentally impoverished lives in the materially abundant world.

This study analyzed the projection of shadow personality in “Tower of ants” by Inho Choi in 1977, and “Pelican” by Jungil Jang in 1980 based on C.G. Jung's perspectives. Jung said that one's life is a history of one's unconsciousness realizing itself. He also said that all psychological symptoms have purposes and meanings and neurosis is an opportunity to achieve change and growth of one's personality and unified self, i.e.

wholeness. But people who only think scientifically cannot understand Jung's concepts. Each discipline of science studies one specific science area while philosophy studies unity, totality, general and universal things. In other words, science is a study of something while philosophy is a study of nothingness of something or nothing. Jung's psychology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Yin and Yang philosophy of eastern philosophy. According to the philosophy, Yin and Yang are not separate and Yin is dark shadow and Yang is bright light. This philosophy coincides with Jung's psychology that sees consciousness as bright light and unconsciousness as dark shadow.

This study analyzed the types of conflict in the two novels using the psychological symptoms to find out the shadow personality and semantic network of each character. It tried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symptoms of each character instead of considering them as pathological aspects. In the novels, characters express anger or fear to harmless animals like the ants and pelicans.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causes of such abnormal behaviors and the essence of shadow personality and its purpose. This study found that psychological symptoms each character exhibit in these novels are not just meaningless pain and they enabled the characters to move toward self realization and perfection of personality.

Through this study, this author found that everyone has dark shadow personality in them but they just don't realize it. These two novels provided special insights on psychological aspects and mental activities. And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se two novels expressed the mental worlds of modern men rather than the set myths based on the traditional literary proposition that literature reflects the social phenomena of the time.

주제어 : 그림자인격(Shadow persnality), 투사(projective), 죽음(dead), 현대소설(modern novels)